

순천만습지 '한국관광 100선' 6회 연속 선정

순천만습지 · 순천만국가정원 생태관광지 자리매김

순천시의 대표 관광지 순천만습지와 순천만국가정원이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다.

'한국관광 100선'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공사가 내국인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꼭 가봐야 할 한국의 대표 관광지를 2년에 한 번씩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특히, 순천만습지는 2013년부터 시작한 한국관광 100선에 6회 연속 선정됐다.

순천만습지는 드넓게 펼쳐진 국내 최대 규모의 갈대밭, 그 위를 날아오르는 철새들, 갯벌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생명이 있는,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통로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생태관광지다. 2006년 순천만습지는 국내 연안



습지 최초로 탐사르협약에 등록됐다. 이어 2018년에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과 함께 탐사르 습지도시로 인증받았으며 2021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

다. 한편, 내년에는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도심 일원에서 '정원에 삽니다'를 주제로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

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된다.

순천시는 2023정원박람회를 통해 정원이 단순히 보고 감상하는 대상이 아닌 일상을 어떻게 바꿔내고 대한민국 도시가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도시발전의 표준 모델을 보여주고자 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생태도시, 정원의 도시 브랜드에 부합하는 관광도시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보존과 더불어 합리적 이용이 가능한 대한민국 도시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지역은 전국 관광안내소에 배포되는 '한국관광 100선 지도'에도 포함되며,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 게시되어 전국적으로 홍보된다. /순천=조순의 기자

광양, 전남도 투자유치평가 '최우수'

3년 연속 수상 영예

광양시는 지난 13일 전라남도 왕인실에서 열린 '2022년 일자리 한마당 행사' 및 일자리 창출 실적 협약식'에서 투자유치 우수 시·군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실적, 투자실행 실적, 투자유치 여건 조성, 투자유치 일반행정 등 4개 항목의 실적을 평가해 선정했으며, 광양시는 2020년 최우수상, 2021년 우수상에 이어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 시는 천연가스(LNG) 터미널 증설을 위한 엔이에이치투 투자협약, ㈜포스코케미칼 전구체 생산 투

자협약, 이차전지 양극재용 전구체 소재 생산을 위한 ㈜씨아이에스케미칼 투자협약, 자재 통합관리를 위한 ㈜포스코 물류창고 투자협약 등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며 20개 사, 1조 7,626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687명의 고용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투자기업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코자 조례 개정을 통해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 지원사업',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지원사업' 등 확대된 보조금 지원시책을 펼치고, 적극적인 산업단지 홍보와 맞춤형 기업 유치를 통해 신규, 익신, 명당3지구 등 미분양 산단의 분양률 활성화를 도모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양=조순의 기자

구례 지역개발사업 '합동 실시설계 T/F팀' 운영

자체 설계 통해 실시설계비 2억 원 이상 예산절감 효과

구례군은 올해 지역개발사업 및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5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분청 및 읍·면 시설지 공무원 9명이 참여해 사업 220건(사업비 46억 원)을 자체 설계함으로써 약 2억원의 실시설계비 예산을 절감하고,

팀원 상호 검토를 통해 설계 오류를 최소화하며 설계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주요 추진사항은 민원인 상담, 현장조사 및 측량, 설계도서 작성 및 검토로 현장조사 시점부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설계를 신속히 완료하여 영농기 이전

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영농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재정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순호 군수는 "실시설계 T/F팀"에서 설계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의 신속한발주 및 준공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오광범 기자

순천, 내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이달 말까지 접수

순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의 근로기회 확충을 위해 2023년도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178명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공공근로사업 15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8명이다.

근로기간은 2023년 2월 27일부터 6월 11일까지이며, 참여자는 △정보화 추진분야 25개 △공공서비스 지원분야 13개 △환경정비분야 72개 등 총 110개의 사업장에 배치되어 근무한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취업 취약계층 및 청년 실업자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순천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곡성군미래교육재단, 타 시군 교육관계자 벤치마킹 잇따라

재단설립과정 운영사례 관심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이하 '미래교육재단')의 교육 중간지원조직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타 시군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2020년 6월 곡성군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미래교육재단을 출연해 설립했다.

올해 미래교육재단에서는 타 지자체와 교육청 관계자들의 방문 횟수가 급증했다. 교육협력 중간지원조

직을 구축하기 위해 재단 설립과정과 운영 사례를 듣기 위해서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9회, 200여 명에서 2022년 36회, 500여 명이 벤치마킹을 위해 재단을 방문했다.

미래교육재단은 민관학 구성원들이 조직으로 함께 연결돼 있다. 재단 정원 25명 중 곡성군 공무원 8명, 교육행정 공무원 3명, 교육지원청 장학사, 교사가 포함돼 있다. 이는 예산, 행정력,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의 적시성을 확보하는 데 큰 강점이 될 수 있다. /곡성=이상석 기자

곡성청의융합교육관 꿈키움마루도 벤치마킹 인기 시설 중 하나다. 벤치마킹 방문자들은 재단에서 꿈키움마루 시설을 운영하고 4차 대응 교육프로그램 강사진까지 안정적으로 수급하는 있는 것을 가장 우수한 사례로 꼽았다.

미래교육재단 관계자는 "올 한 해 재단에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해주신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더 지역과 학교의 중간지원 플랫폼으로서의 소임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이상석 기자

순천, 지방자치 경쟁력 '3년 연속 전남 최고 지자체 선정'

인증서 전달 받아

순천시는 '2022 한국지방자치 경쟁력지수(KLCI) 평가'에서 3년 연속 전남 종합경쟁력 최고 지자체로 선정되어 14일 인증서를 받았다.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이기현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과 권영국 본부장이 참석해 노관규 순천시장에게 종합경쟁력 전남 최고 지자체 선정 인증서를 전달했다.

1996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는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자체별 통계 연보와 정부부처 및 기관의 공식



통계자료 등을 조사해 지수화한 지표다.

전국 지자체의 경쟁력을 측정해 상대적으로 비교·분석한 것으로 전국 시군구에서 차지하는 지자체의 위상, 인구, 지리적 위치와 특성 등이 경쟁력의 일부로 반영됐다. /순천=조순의 기자

순천시는 전남 22개 시군의 평균인 425.43을 훨씬 상회한 553.07로 1위를 차지했으며, 지속적인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공간 혁신이 주요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이 3년 연속 전남 종합경쟁력 1위에 오른 것은 역동적인 정원박람회 개최 준비 등 시민과 함께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친 결과"라면서 "복합 소방물유치를 통한 소비인구 유입, 미래지향적 도시 공간 조성, 미래기술 기반의 신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남해안 관광벨트 허브 도약으로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조순의 기자

광양, 기본형 공익직불금 6498명에 72억원 지급

농가 안정적 수입 보장... 농촌사회 활력 기여

광양시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6498농가를 확정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72억 원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한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에 따라 각각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어 지

급하고 있다.

소농직불금은 0.1~0.5ha 농지를 경작하고 소득, 농촌 거주기간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3,183농가에 120만 원씩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 구간별 지원단가에 따라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3,315농가에 총 34억 원을 차등 지원한다. /광양=조순의 기자

공익직불금은 지급 대상 농지와 지급 대상 농업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으며,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17가지의 농업인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직불금의 10%를 감액해 지급한다.

성재순 농업지원과장은 "올해 코로나19와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양=조순의 기자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2023.4.1.~10.31.

주최: 산림청, 전라남도, 순천시,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정원에 삽니다 함께사업해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 이전과관**: 정원의 가치를 알리고, 조경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 그린데이**: 저소득층 청년의 정원을 키워주고, 시민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 순천만 정원박람회**: 순천의 정원을 알리고, 조경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 가든스타이**: 정원의 역사, 문화, 음식, 정원, 건조, 정원미, 아우터, 산악, 체험프로그램을 소개한다.
- 대한민국 대표 정원**: 정원의 가치를 알리고, 조경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 정원박람회**: 정원의 가치를 알리고, 조경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 미세정원**: 정원의 가치를 알리고, 조경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했다.